

營農技術 開發로 自給率 올려야

「인류는 20세기가 끝나기 이전에 심각한 食糧難을 맞게된다」는 食糧문제전문가들의 확신에 찬 展望은 세계 곳곳에서 벌써 구체적인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食糧부족문제는 農耕社會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 일수록 심각하다. 개발도상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대표적인 쌀수출국이었던 東南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은 대표적인 쌀수입국으로 전락해 있기도 하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쌀 소비량 증대, 급진적인 工業化추진에 따른 농촌인구감소와 절대경지면적의 현저한 감소추세, 농수산물수입의 深化에 따른 국내농업생산기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食糧부족현상은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국방문제 이상의 주요 국가 정책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정세는 食糧의 武器化를 加速化시키고 있다. 석유의 武器化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의 資源保護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체결에서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石油의 武器化에 이어 食糧이 무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美·이란관계에서 人質구출을 위한 압력수단의 하나로, 美·蘇관계에서 올림픽 참가거부와 함께 「食糧수출금지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이같은 武器化추세는 보다 많은 국가에 확산돼 가는 추세이다.

食糧의 武器化는 공급량 조절과 함께 거래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놓고 있다.

최초의 쌀국제시세를 보면 78년말의 톤당 가격 2백 50달러가 79년말에는 1년사이 23.6%가 오른 3백 8달러였고 3개월 뒤에는 3백 98

食糧增産이 最大課題

周

永

錫

(前經濟通信記者)

달러로 다시 30%가 그 2개월 뒤인 지난 5월 15일 현재 방콕 穀物시장에서는 거래가격이 4백 18달러로 치솟아 지난 78년말 이후 1년 5개월 사이 국제 쌀거래 가격이 60%씩이나 폭등했다.

세계의 식량생산이 몇몇 농업선진국의 「독과점품」이 돼가면서 「부르는게 값」이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없는데 식량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4월 23일 國際小麥理事會(I.W.C)의 보고서에 의하면 80년도의 世界米穀交易豫想량은 그 絶對量이 79년보다 약간 늘었으나 국제관계의 계속적인 긴장으로 그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80년도의 세계 쌀교역량은 79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천 1백 10만t線을 유지하게 돼 79년말의 세계 쌀在庫가 5백만t이 늘어난 4천 4백만t에 달할 것으로 豫想되나 문제는 식량의 武器化나 資源民族主義의 확산으로 그 교역조건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식량기구도 현재 연간 4억 5천만톤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앞으로 닥쳐올 饑餓와 영양실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내에 그들의 식량생산을 倍增시켜야 할 것이라고 開途國의 식량문제가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다.

유엔 國際農業開發基金(IFAD)총재인 알·수 데아리에 의하면 開途國이 소요식량을 완전히 충족시킬만큼 식량증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들 極貧 開途國에 연간 1백 30억달러의 추가원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엄청난 財源마련도 문제지만 인구증가율을 못 따르는 식량증산의 限界性은 식량자급을 풀수 없는 인류의 숙제로 만들고 있다.

세계의 대표적인 資源貧困國家중의 하나인

우리나라가 식량자급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例外가 아니다.

올해 自給率도 예년수준

우리나라 全體식량의 自給度는 지난 66년의 94.7%를 頂點으로 매년 떨어져 79년에는 59.9%였고 80년 중에는 例年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어서 매년 각종식량을 외국으로부터 비싼 外貨를 주고 수입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쌀의 剩餘時代를 산 때도 있었다. 지난 76년 100.5%로 自給을 이루었던 쌀이 自給달성 3년만인 79년에는 자급도가 86.0%로 떨어졌고 쌀·보리·밀·콩·옥수수 등 전체식량의 자급도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마련한 「식량수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및 飼料作物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耕地면적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앞으로 10년후인 91년의 우리나라 穀物自給率은 78년의 74.2%, 79년의 59.9%에서 例年수준에 머물러 국내소요량의 상당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수산부가 집계한 79년말 총경지면적은 짚 1백 31만 1천정보, 田 89만 6천정보 등 총 2백 20만 7천정보로 前年末대비 1만 5천정보가 감소됐고 75년의 2백 24만정보 보다는 3만 7천정보가, 경지면적이 가장 많았던 68년의 2백 31만 9천정보 보다 무려 11만 2천정보(약 3억 3천 6백만坪)가 줄어 매년 1만여정보씩 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지면적의 감소 현상은 또한 產業構造의 변동에 따른 工團 및 도시근교의 農地轉用이 增加된데다 農民들 자신이 收益性이 낮은 보리 등 田作物재배를 꺼려함에 따라 경지

이용을마져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농수산부는 80년 쌀의 自給度를 97.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생산해내기로 정한 쌀생산목표량은 79년도의 생산실적 3천 8백 64만 5천석보다 약 9%를 늘려 잡은 4천 2백만섬이다.

지난 77년도에 4천 1백 70만 6천섬을 생산 목표량 3천 8백 78만섬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올렸었다. 이같은 실적초과는 多收穫 品種인 통일벼계통의 새법씨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의 PL480에 의해 無償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온 밀은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서서히 바꾸면서 밀가루 음식의 식생활 점유율을 높여갔고 밀이 매년 有無償으로 다량 도입되면서 국내 밀생산량은 바닥을 드러내놓기 시작했다.

일본이 2차대전후 식생활향상이란 명분으로 거쳤던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빵과 우유만으로 식생활을 영위하는 특수계층을 낳았다는 것만으로 정부의 식생활개선시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현재 미국의 밀생산업자들이 東南亞일대에서 對議會, 官界, 實業界, 일반인을 상대로 맹렬한 로비活動을 펴고있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示唆的이다.

이들 미국의 로비리스트들은 일류호텔에 각종 빵류와 호화스런 밀가루 음식을 차려놓고 쌀과 채소에만 익숙해 있는 이들 국가의 주요 정책입안참여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펴고 있는 것이다. 몇년 뒤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식생활개선이란 명분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거리마다 분식센터가 雨後竹筍처럼 생겨날 지도 모른다.

薄土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 콩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익숙한 것이 콩밭이다. 그러나 이

제 농촌에서조차 콩밭 찾아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에서 채산이 안맞는 콩심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리의 소비량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즉 1인당 연간식용소비량이 지난 76년도에 34.7kg이던 것이 78년에는 18.1kg으로 2년사이 무려 48%나 감소했고 79년에는 다시 줄어 14.4kg으로 떨어졌다. 올해 1인당 보리소비량을 79년보다 약간 는 15.1kg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混食의면으로 대년도 在庫移越量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리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까지 일정량의 보리채배면적을 강요하던 것을 농민자유 의사에 맡기므로써 채배면적 감소와 올해 보리작況의 악화 등으로 지난해 생산량인 1천 92만 9천석의 절반 수준인 6백 59만 6천석에 불과해 보리의 자급율도 지난해의 1백 17%에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보리는 쌀 다음가는 주식으로 식량공급면에서 크게 기여해 왔다. 쌀과 보리의 소비량중 보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년도에는 22.4%에 달했으나 보리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음에 따라 78년에는 11.8%로 줄었다.

같은 기간중 보리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6.6kg이 줄었으나 쌀소비량은 14.6kg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보리소비량의 대부분이 쌀로 代替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보리의 食用소비량이 78년도 수준(67만 9천톤)의 절반으로 줄 경우 이의 대부분이 쌀로 대체된다면 쌀의 소비량은 약 30만톤(약 2백 7만석)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畜産振興策이 時急하다

78년도 쌀 소비량은 非食用을 포함하여 5백 78만 4천톤(약 4천만석)이었으며 여기에 보리

소비량의 감소에 의한 쌀소비량증가분 2백 7만석을 합하면 총米穀소비량은 4천 2백 7만석의 쌀을 생산하더라도 쌀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된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氣象조건과 병충해 발생 등에 따라 收穫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기상조건이 좋은 해에도 4천 2백만석을 생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主穀의 安定的인 自給을 위해서는 보리의 食用消費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며 多收穫品種인 새 법씨의 재배면적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전반적인 소득수준향상과 食生活개선으로 식량으로서의 肉類(소·돼지·닭고기)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 축산육성을 위한 長期投資施策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肉類소비추세는 지난 76년 24만 5천톤에서 지난해에 42만 9천톤으로 3년사이 75%나 늘었고 80년중에는 45만 6천톤이 소비될것으로 예상돼 79년대비 5.3%의 소비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 당국자는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이 76년 6.8kg, 79년 11.3kg, 80년 11.9kg의 추세로 신장돼 91년에는 24.0kg(연간소비량 1백 18만 4천톤)에 이를것으로 추정, 소비추세를 앞지르기 위한 종합적인 축산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農地 減少도 문제

더구나 70년대 후반들어 物價安定策에 눌린 收買價引上率의 鈍化와 綠色革命의 成果침체로 쌀의 자급도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飼料穀의 수입도 급증세로 늘어났다.

따라서 세계 食糧需給전망에 대한 需要측의

증가요인과 供給측의 制約요인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需給사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령 總量面에서 樂觀的인 입장을 받아드린 다 하더라도 地域간의 需給不均衡과 油價상승에 따른 생산제약 국제정세의 불안요인 등을 고려할 때 供給의 逼迫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곡물수입가격의 현저한 상승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FAO보고서도 개발도상국들의 곡물 수입수요가 오는 85년에는 79년도의 7천 2백만톤보다 28%나 늘어난 9천 4백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사정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식량자급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일깨워주고 있다.

보리혼식
건강가족